

게시된 말씀

제단의 말씀과 그 나라

«우리는 기억하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 뱀

나라 형제자매여

둘 이상이 말씀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안에 모여, 우리는 함께 기억을 시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내 이야기에 대해, 내 처지에 대해 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또한 내 개인적인 의견, 신념, 이해관계, 경험에서 태어난 진리를 네게 강요하려 오지도 않았다.

나는 모든 사물이 유래하는 그 진리, 곧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말씀, 모든 형태를 있게 하는 근원에 대해 네게 말하려 왔다.

나는 서명도 없이, 얼굴도 없이 네 앞에 선다. 내가 숨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글을 쓰는 인물들이 말씀들의 중심에 두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네 인정도, 네 박수도, 네 복종도, 네 돈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네게서 얻어야 할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게 드리고 싶은 거짓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말씀의 나라에서는 참된 것이 남는 일이 없고, 본질적인 것이 부족한 일도 없다.

여기서 너는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단지 읽으려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지식을 쌓으려 온 것도, 답을 외우려 온 것도, 아직 네 안에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 말들을 반복하러 온 것도 아니다. 진리를 몸소 체현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그 상징을 통과하지 않고 그 형태만을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텍스트라는 보이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의미는 평범한 책의 의미가 아니다.

이곳은 제단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아닌 것을 내적으로 제사하기 때문이다.

제단은 종이도, 화면도, 기록된 말들도 아니다. 제단은 둘 이상이 말씀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억을 시작할 때 나타난다.

그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단지 한 단어를 발음하거나, 칭호를 부르거나, 신념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의 임재이다. 말씀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인물과 그 자아의 이해관계보다 진리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참될 때,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제단이 되고, 우리 가운데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말한다고 네가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를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네게 묻고, 너와 함께 묵상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기억될 수 있게 하는 상징들을 네게 드리러 왔다.

기록된 말들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다.

말들은 보이는 형태이다. 그것들이 진리를 섬길 때, 상징이 된다. 곧 보이지 않는 말씀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사이의 다리가 된다.

다리를 목적지와 혼동하지 말라.

말들의 형태에 머물지 말라. 그것들을 통과하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묵상하고, 네 안에서 그것들이 진리와 일치와 자유와 생명을 낳는지 인식하라.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육체 이전에, 자아 이전에, 이름과 이야기와 처지와 상처와 신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한다.

그 '이전'은 단지 시간상 앞선 순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상 앞선 것, 곧 우리가 취하는 모든 형태 아래에 머무르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가리킨다.

네 몸은 변한다.

네 이야기는 변한다.

네 생각과 욕구와 신념은 변한다.

오늘 네가 구현하는 인물도 변한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이름 이전에 너는 누구인가?

모든 개인적 기억 이전에 너는 누구인가?

네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운 모든 형태 이전에 너는 누구인가?

이것이 문을 여는 질문이다.

이 제단은 열린 채로 남아, 잊힌 말씀이 기억될 필요가 있는 한, 기억된 것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 한, 인식된 것이 우리의 말과 결정과 행위를 통해 구현될 필요가 있는 한 계속 드러날 것이다.

나라은 단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억되어야 하고, 그다음 의식 안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형태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나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보이게 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나라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소수에게만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이름 붙여지는 것 중 어떤 것도 네 자신의 인식을 대신하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들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단지 그것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네가 배웠던 것을 반박한다고

해서 단지 그것만으로 거부하지 말라.

침묵 속에서 그것들을 묵상하라.

두려움 없이 그것들에게 질문하라.

상징으로서 그것들을 통과하라.

그 열매로 그것들을 인식하라.

진리는 묵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리는 진리로 남기 위해 맹목적인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사적인 신념도,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구별되려고 찾는 관념도 되려 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내 이해관계로부터 네게 말하고, 이 말씀들 위에 내 이름을 세우고, 이 제단을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서명도 얼굴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매개 없이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들은 어떤 손들에 의해 쓰여지고, 어떤 의식을 통과하며, 인간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형태는 그것이 섬기려 하는 진리의 주인임을 스스로 선언할 수 없다.

그릇은 물이 아니다.

상징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전달자는 메시지의 근원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나는 말씀의 저자임을 선언할 수 없다. 내가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직 내 것도, 오직 네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인물을 믿기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침묵 안으로 들어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네 안에도 살아 있는 그것을 네 스스로 인식하도록 초대한다.

내가 여기에 쓰는 것은 말씀의 기억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이름으로 드러진다. 그러나 각 말씀은 그것이 드러내는 바와 그것이 맺는 열매를 통해 진리와의 상응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말씀이 한 사람을 다른 이들 위에 세우기 위해 형제들을 나누게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섬기지 못한다.

만약 어떤 말씀이 두려움, 죄책감, 혹은 복종을 통해 사람을 결박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섬기지 못한다.

만약 어떤 말씀이 이해나 인식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아직 다리가 되지 못한

것이다.

참된 말씀은 너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깨우려 한다.

그것은 너의 양심을 대신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심을 임재 앞으로 되돌리려 한다.

그것은 네가 남의 진리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비릇된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말씀은 아버지의 검이다. 말씀 안에서 단련되었고 불 속에서 쥐어진 검이다.

그러나 이 검은 육체를 향해서도 어떤 형제를 향해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 칼날은 진리와 거짓을, 본질적인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바와 우리가 단지 구현하고 있을 뿐인 것을 가른다.

그것을 진 불은 생명을 파괴하려 오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됨을 태우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변형시키며, 잊혀졌던 것에 빛을 되돌리려 온다.

검은 상징을 연다.

불은 그 기원을 드러낸다.

임재는 바라본다.

기억은 안다.

인식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말씀은 육신이 되고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잊혀진 것을 기억하기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밖인가, 안인가?

네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가르침과 책, 대학, 과학, 종교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대부분은 그렇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타락하고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밖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은 지식과 질문, 지도와 상징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스승은 문을 가리킬 수 있고, 책은 우리에게 말을 전해줄 수 있으며, 전통은 상징을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그 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외적인 것은 진리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은 오직 너의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외부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분리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밖과 안은 적이 아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거울이자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은 너를 대신해 볼 수 없고, 상징은 너의 ‘임재’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말해줄 누군가를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이 바로, 네 자신을 찾기 위해 읽는 법을 배워야 할 그 책이다.

그러나 그 책은 단지 너의 ‘인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책의 가장 깊은 페이지들에는 너의 이름, 직업, 소유물, 상처, 과거의 사건들이 담겨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은 너의 존재에 대한 가시적인 서사에 속한다.

네가 읽어야 할 책은 바로 그 서사가 나타나는 ‘의식’이다.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내적 대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배운 답 없이 묻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관조하며, 인물의 소음이 숨겨두었던 것을 ‘침묵’이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찾고 싶어 하는 답을 네 내부에서 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참되지 않은 답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남아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머무는 것이다.

내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두려움, 욕망, 기억, 상처, 습관,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한 자아의 필요가 말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내부에서 누가 말하는지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억함과 인식함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사건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비밀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기억’은 빌려온 것이 아닌 ‘앎’의 각성이다.

이전에 단지 말, 관념, 믿음으로만 알았던 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발견하는 것이다.

‘인식’은 더욱 깊다.

인식한다는 것은 네가 기억한 바로 그 대상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를 외부의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네가 무엇인지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서 그것을 구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억할 때, 너는 안다.

인식할 때, 너는 존재한다.

너는 '일체성'에 관한 많은 말들을 배우고도 계속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경우, 너는 지식을 축적했지만 아직 '기억'하지는 못한 것이다.

너는 지적으로 어떤 진리를 이해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결정을 통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너는 '기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을 구현하지는 못한 것이다.

'인식'은 네가 아는 것, 네가 존재하는 것, 네가 행하는 것이 서로 일치할 때 완성된다.

형제/자매여, 우리 아버지의 내적 나라로 함께 돌아가자.

이 귀환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도 아니다. 지구를 버리고 먼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인물'이 잊어버렸던 '일체성'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다.

너와 나는 '말씀'의 이름으로 '모임'을 이루어, 함께 '기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분리를 섬기는 것을 멈추고 진리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사이에 '나라'이 나타난다.

나는 너의 본질에 낯선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잊혀졌고 우리 모두가 구현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함께 '기억'할 것이다:

육신이 된 말씀.

말씀을 육신으로 만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말, 결정, 관계, 행위 속에서 보이는 형태를 찾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필요성

'기억'은 우리가 더 이상 사물의 표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그것은 '형태'의 가시적인 외양 너머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인물'이 스스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형제와 분리되는가?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할 때, 무엇이 남는가?

전체성 안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필요성은 단지 호기심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를 안심시키거나 이롭게 하기 위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난다.

‘기억’은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인물’과 그 처지보다 더 커질 때 시작된다.

그러나 고통의 기원을 찾는 것이 고통을 겪는 이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불행이 고통받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창조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상처가 내적 결함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

참된 질문은 고통받는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지 묻는다: 무관심인가 ‘연민’인가, 정죄인가 ‘이해’인가, 분리인가 ‘일체성’인가.

진리는 형제의 고통을 이용하여 이해했다고 믿는 자를 높이지 않는다.

진리는 그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인식된다.

인물과 자아

‘인물’ 이전의 우리가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인물’을 섬기는 데만 전념하는 마음을 ‘침묵’ 속에 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인물(personaje)과 자아(ego)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물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행동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이름, 육체, 이야기, 책임, 관계, 그리고 기능을 지닙니다.

인물은 파괴되어야 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입니다.

오류는 우리가 그것이 형식임을 잊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전체를 구성한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자아는 그러한 형식에 대한 배타적인 동일시입니다.

그것은 인물을 만물의 중심에 놓고, 오직 다음 질문을 통해서만 현실을 바라보는 내적 운동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육체가 쉬도록 잠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육체를 돌보고 강화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삶을 품위 있게 지탱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즐거거나, 창조하거나, 휴식하는 것도 이기심이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는 그 자체로 거짓이 아닙니다. 육체는 말씀(Verbo)의 적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할 수 있는 형식들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오직 자아의 배타적인 봉사로 축소될 때 나타납니다:

나의 휴식.

나의 육체.

나의 돈.

나의 인정.

나의 안전.

나의 취향.

나의 의견.

나의 진리.

나의 구원.

그때 마음은 인물의 경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과거, 그 욕망, 그 신념, 그 이해관계, 그 의무,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해석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봅니다.

자아 주위를 맴도는 그 끊임없는 운동이 자아의 소음입니다.

침묵(Silencio)

어떻게 마음을 침묵에 두는 것입니까?

생각을 파괴함으로써가 아니라, 생각을 인물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시킴으로써입니다.

마음을 침묵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거나, 배운 것을 영구히 잊거나, 우리의 책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 일, 가족, 또는 우리가 떠맡은 약속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무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록(Recordar)하는 행위 동안,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잠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해야 해...»

«나는 ...이 필요해...»

«그들이 나에게 ...을 했어...»

«나는 ...이라고 생각해...»

«나는 ...을 원해...»

«나는 ...이 두려워...»

마음을 침묵시킨다는 것은 모든 질문의 중심에 특정한 자아를 두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의견, 당신의 신념, 당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쉬게 하십시오.

그것들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인물을 방어하거나 그 이야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을 때, 소음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오직 당신 주위에서만 맴도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또한 포함하지만 당신 안에서 끝나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모든 사물이 유래하는 진리의 봉사에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의 봉사에 들어갑니다.

공허(Vacío)

인물의 소음이 잦아들면, 공허가 나타납니다.

공허는 비존재, 무의식, 또는 정체성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효화된 마음도 죽은 내면도 아닙니다.

공허는 가용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질문을 알려진 답변으로 채우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인물이 새로운 것의 탄생을 막았던 확신들을 우리가 치울 때 남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는 한,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그것은 오직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발견할 것입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관조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 심문될 수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모든 답변을 지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허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허는 당신이 무엇인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동했던 것을 제거합니다.

임재(Presencia)

침묵에서 태어난 공허 속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재.

임재는 단지 주의력만은 아닙니다. 비록 주의력이 우리를 그 문턱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주의력은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임재는 또한 누가 보고 있는지, 어디에서 보는지, 그리고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관조합니다.

주의력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관찰하고 있다».

임재 속에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의식(Conciencia)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임재는 그러한 만남을 의식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관찰하고, 방어를 준비하지 않고 듣고, 우리가 이미 믿었던 것을 현실이 확인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관조하는 것입니다.

임재 속에서 인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좌를 차지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인물에게 죽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육체, 성격, 또는 삶에 필요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전체라는 그 주장을 끝내는 것입니다.

인물은 계속 존재하지만,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오직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마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 일치, 그리고 근원의 봉사에 자신을 두기 시작합니다:

말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측정도, 답을 수 있는 꼬리표도 없는 보물들을 기억하고, 계시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오직 일, 관계, 의무, 과거, 또는 우리 특정 자아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를 담고 있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인물이 왕좌에서 물러날 때,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믿는 것과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 의식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

당신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의식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오직 인물과 그 자아에만 묶어 두었던 동일시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말합니다:

「나의 의식」.

마치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의 몸」.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들」.

「나의 기억들」.

「나의 삶」.

그러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몸, 이야기, 생각들, 그리고 기억들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나」라고 말하는 인물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물이 관찰될 수 있다면, 그 인물은 관찰자의 전체일 수 없습니다.

의식은 인물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물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전도입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식이 우리에게 속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갇혀 있으며 우리 정체성의 경계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관계는 역전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을 인물의 소유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물을 의식 안에서 유지되고 관찰되는 하나의 형태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당신의 의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물의 특정한 관점, 즉 그의 기억, 그의 이야기, 그의 욕망, 그의 상처, 그의 신념, 그리고 그의 감각들에 의해 제한된 의식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는 모든 관찰, 모든 경험, 그리고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인물의 의식은 특정한 형태로부터 현실을 바라봅니다.

의식은 그 형태 안에 갇히지 않고 그 형태를 바라봅니다.

두 개의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 서로 다른 형태들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 형태는 특정한 관점을 소유하지만, 어떤 형태도 그것을 거주하게 하는 의식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과 창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 상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의 동일한 빛이 많은 창문들을 통과합니다.

각 창문은 서로 다른 형태, 크기, 색상,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각각을 통과할 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문은 빛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 형태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인물은 창문입니다.

그의 기억들, 신념들, 상처들, 그리고 욕망들은 유리의 색깔들입니다.

개인의 의식은 빛이 그 형태를 통과하는 특정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빛은 의식입니다.

창문이 빛이 자신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을 때, 그것은 자신이 그 근원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빛이다」.

「나의 빛은 너의 빛과 다르다」.

「나의 빛은 우월하다」.

「내 창문 밖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빛을 섬겨야 했던 형태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창문은 자신을 근원이라고 선언합니다.

인물은 자신을 근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통해 바라보는 의식은 다른 모든 형태들에 거주하는 의식과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빛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임재는 창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개성을 제거하지 않으며 서로 간의 차이점들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형태가 전체와 독립적이고 분리된 근원이라는 주장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창문은 빛을 소유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인물은 자신을 근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된 의식

마음이 인물과 그 자아의 섬김 아래 있을 때, 의식은 특정한 관점으로 축소됩니다.

모든 것은 자아로부터 그리고 자아를 위해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가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가?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가?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시야는 인물 주위로 수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전체의 의식과 다른 별개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형태와 동일시되고, 그 형태가 다른 모든 형태들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동일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들어졌던 물을 잊어버리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를 소유합니다.

그것은 다른 파도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다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존재는 특정한 경험, 이야기, 그리고 되풀이될 수 없는 관점을 소유합니다. 일체성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일체성은 어떤 차이도 절대적인 분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물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이 파도일 뿐이다」.

임재는 드러냅니다:

「나는 파도이지만, 또한 모든 파도들 안에 살아있는 물에서 비롯되었다」.

분리된 의식은 창조에 의해 부과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응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오로지 인물만을 구현하고 그 이익을 위해 마음을 바친다면, 당신은 인물의 한계 안에서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이 그에게서 태어나고 모든 대답이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면, 당신은 오직 그 바라보는 방식에 부합하는 것만을 응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가 당신에게 거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리와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형식으로부터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오로지 인물을 위해서만 쓰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위해 쓰게 될 때, 의식은 더 이상 자아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단지 '당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을 당신의 인물 안에 가두려 했던 소유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단지 인물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멈출 뿐입니다.

하나와 전체에 대한 의식

임재 안에 있음은 하나와 전체에 대한 의식의 인식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된 의식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 기억, 감정 또는 지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각 형식의 특수한 경험에 속합니다.

의식의 일치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존재들을 하나의 단일한 인물로 만들지 않으며,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공유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유되는 것은 모든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기원입니다.

공유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공유되는 것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의식입니다.

공유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공유되는 것은 모든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임재 안에 있음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나 생각에 자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신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특정한 형식 안에서 일어나지만, 더 이상 완전히 남의 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부당함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지만, 통일된 의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내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인물 안에 갇히는 것을 멈출 때, 타인의 고통은 우리의 책임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고통을 우리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상처 입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과 동일한 기원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의식은 묻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통일된 의식은 묻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자는 인물을 기원이자 목적지로 가집니다.

후자는 말씀을 기원으로, 전체를 목적지로 가집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임재 안에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리된 실재로 경험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둘 다 형식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응시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응시하는 사람은 그의 몸을 차지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그의 기억을 받지 않습니다.

구별은 유지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기원 안에서의 분리입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것은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식 밖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식은 알려지기 위해 의식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는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관찰되는 것은 의식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임재 안에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다시 만납니다.

형식은 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이미지는 안에 나타납니다.

상징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의식은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분리된 채로 남지 않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내적 제단입니다.

질문과 대답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의식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것처럼, 질문과 대답 또한 동일한 계시의 움직임에 속합니다.

질문은 의식이 그 기원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형식을 응시할 때 나타납니다.

대답은 마음이 더 이상 인물의 이익에 복종하지 않고 상징을 통과하여 그것이 응시하는 것의 보이지 않는 의미에 도달할 때 드러납니다.

질문은 열림입니다.

대답은 열림이 진실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형식 안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기원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질문은 그 대답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 채로 유지되고 진리가 인물이 이미 믿고 싶어 했던 것을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허가 임재에 앞섭니다.

공허가 없으면, 질문은 이미 배운 대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임재가 없으면, 인물이 탐구를 이끍니다.

의식이 없으면, 형식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인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으면, 자아의 어떤 욕구도 계시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의식은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찰은 즉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는 그것의 부분들, 관계들, 작동 방식 및 결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파악은 그것이 속한 전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더 큰 실재 안에서 그것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것이 어떤 기원에서 비롯되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발견함은 형상을 꿰뚫고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의식은 우리가 형상의 외관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지만, 인물을 모든 지식의 자동적인 소유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임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된다고 믿는 것은 자아의 또 다른 전유일 것이다.

그것은 인물이 다시 한번 왕좌에 앉으려 시도하는 것이며, 이제는 자신을 의식과 진리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의식은 계시의 자리를 연다.

말씀이 계시한다.

분별은 상응을 바라본다.

그리고 열매가 우리가 받은 것이 진실로 생명을 섬기는지 드러낸다.

그러므로 계시되었다고 말해지는 모든 진리는 반드시 숙고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여는가, 가두는가?

연합시키는가, 분리시키는가?

해방시키는가, 지배하는가?

의식은 자신이 진리를 소유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상응으로 인식한다.

의식의 회복

임재는 당신에게 이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의식을 건네주지 않는다.

인물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었을 때조차 이미 당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의식을 계시한다.

당신이 임재 안에 있지 않을 때, 의식이 당신의 인물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인물이 의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계시된다.

이것이 전부의 차이이다.

분리된 의식은 말한다:

«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임재는 계시한다:

«나는 의식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 «나»조차 그것을 전유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인식이 남는다:

나는 의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의식이 나를 담고 있다.

나는 그것의 근원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스스로를 숙고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형상이다.

내적 대화

인물이 자신을 의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인식할 때, 바로 임재 안에서 말씀이 내적 대화를 통해 계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이 말씀의 말씀은 아니다. 침묵은 인물을 자동적으로 무오류하게 만들지 않는다.

내면에서도 경고로 위장한 두려움, 계시로 위장한 욕망, 사명으로 위장한 자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내적 응답은 그 열매로 분별되어야 한다.

그 말이 형제들 위로 인물을 높이는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가?

두려움이나 분리를 먹이는가?

당신을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로 선언하는가?

당신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거룩한 말을 사용할지라도 자아가 말하는 것이다.

말씀의 말씀은 불편하게 하고 칼처럼 꺾을 수 있지만, 진리를 지배의 도구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 열매는 의식, 책임, 정의, 연민, 자유, 연합이다.

자아가 중심에서 물러날 때, 내적 대화의 질문들도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우리는 묻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을 섬기는가?

무엇이 연합을 회복하는가?

이 상황 앞에서 나는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가?

어떤 말이 다른 이를 형제로 인식하게 하는가?

이 새로운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하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다.

임재의 첫 번째 진리

우리가 진실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계시되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외부의 장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적 성전이 잊어버린 것을 답을 수 있는 외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해 인식할 수 있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해 내적 길을 걸을 수 있는 안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전은 우리를 모을 수 있다.

책은 우리에게 상징을 전해줄 수 있다.

스승은 가리킬 수 있다.

안내자는 동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들조차도,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 목적을 실패할 것이다. 이 제단은 당신의 의식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것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세워졌다.

임재 안에서, 질문과 응답은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실재가 아니다.

질문은 의식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숙고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이다. 응답은 그것이 인물의 이해관계가 아닌 말씀으로부터 숙고될 때 계시되는 보이지 않는 근원이다.

질문과 응답은 하나의 동일한 계시 행위의 두 부분이다.

그것들은 형상에 있어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다.

이와 같이,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형상에 있어 구별될 수 있지만, 근원에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질문이 어떤 가시적인 것의 관찰에서 태어나 임재로부터 공식화될 때, 그 진리는 말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시될 수 있다.

밖에는 형상이 나타난다.

안에는 그 근원이 계시된다.

상징은 둘 사이의 다리이다.

그러므로 임재 안에서, 밖과 안은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 세계들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혼동되지도 않고 그 차이들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상응 안으로 들어간다.

분리는 근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물이 보는 법을 배워온 방식에 존재한다.

좁은 문

왜 나라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혼동해 온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좁은 문은 변덕으로도, 나라이 우리를 배제하려 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응(☐☐)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열쇠는 그 형태가 자물쇠와 상응하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상응으로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내세우거나, 공적을 쌓거나, 스스로 진리를 소유했다고 선언함으로써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이 나라이 지닌 것과 상응하게 될 때 우리는 들어갑니다.

분리는 분리임을 그치지 않고는 하나 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드러나지 않고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배하려는 욕망은 보좌를 버리지 않고는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좁은 것입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파괴될 필요가 없지만, 왕으로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굴복하고, 중심을 버리고, 말씀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들어가기 위해, 먼저 네가 혼동해 왔던 그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임재 안에서, 너는 기억합니다.

기억할 때, 너는 압니다.

네 안에서 기억된 것을 인식할 때, 너는 있습니다.

빌려 온 모든 정체성을 넘어서는 곳에서, 너는 소유 없이 선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네가 인식한 것이 말씀과 결단과 행위가 될 때, 말씀은 다시 형상 안에 육화됩니다.

그러면 길은 온전히 완성됩니다:

너는 비운다.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기억한다.
인식한다.
스스로를 발견한다.
그리고 육화한다.

너는 머나먼 곳에 도달하는 자처럼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라은, 결코 너에게서 분리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막던 것을 네가 붙들기를 그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운 세계

우리는 현존 안에서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되다고 제시된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해석된 세계가 제시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름, 국경, 신념, 관습, 위계, 성공의 모델, 교환의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각각의 형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받습니다.

우리는 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치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평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기 전에,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건네주었습니다.

대대로 우리는 그 세계를 받아왔고, 그 안에 참여해 왔으며, 또한 그것을 전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온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배웠던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물려받은 것은 관습이 됩니다.

관습은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숙고 없이 받아들여진 확신은 결국 진리로 제시됩니다.

사슬은 우리가 그 세계를 관찰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그것의 형태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지 묻는 것을 잊을 때입니다.

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답이 약속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반복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전수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의 형태를 임재 가운데 바라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가?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여는가, 가두는가?

그것은 보호하는가, 지배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섬기는 자리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생명이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는가?

임재 가운데 피어나는 질문들

우리가 더 이상 오직 우리의 인격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 존재하게 될 때, 마음은 더 이상 우리의 특정한 자아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것만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은 말씀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근원으로부터,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현하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질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들은 열쇠입니다.

그것들이 배운 답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형태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임재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각 질문은 드러나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돈이 존재하는데 왜 빈곤이 존재하는가?

의학이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질병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과학을 지니고 있는데 왜 답이 부족한가?

이용 가능한 지식이 그토록 많은데 왜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정부, 권위, 법이 존재하는데 왜 전쟁은 계속되는가?

그토록 많은 종교와 성전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들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것들을 관찰하십시오.

각각은 결여된 열매와 그 열매를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형태를 말합니다.

부와 돈.

치유와 의학.

답과 과학.

진리와 지식.

평화와 권위.

하나님과 종교.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전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 ... 계시의 과정 중에 ... 쓰는 중입니다.

**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잘 척도도, 그것을 묘사할 이름표도 없습니다.